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사업화 꿈 돕는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업터 5개 창업팀 육성... 선정시 4개월간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가 발굴하고 육성해온 예비 창업자들이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2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스마트창업터 사업화지원 전국 최종평가에서 그간 창업실습교육을 통해 발굴·육성해 온 5개 창업팀이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스마트창업터는 초기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8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20개의 시장검증팀을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시장검증팀은 최소요건제품을 제작해 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조사를 통해 시장검증 단계를 우수하게 수료했으며, 전국 18개 수행기관에서 추천한 108개 팀들과 경쟁한 최종평가에서 5팀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선정된 과제는 예비창업팀들의 ICT 기반의 공동탕점실 맞춤형 ERP시스템, 두뇌개발 입체화된 추상전라 게임기, 농촌 및 농가 공유 플랫폼(심심상인에 색으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 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진흥원 평가에서 사업추진 의지와 시장성, 성장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코스라의 IoT를 접목한 다기능 아날로그 조명스피커, ㈜씨세론의 '유학생을 위한 번역·교역 서

비스 baogao'도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5개팀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약 4개월 간 협약을 맺고 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 받아 실전 창업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또한, 창업팀에게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개별 보육 공간도 무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스마트창업터 사업화 지원금 받은 4개의 지역 팀 중 뷰티 e-커머스 '뷰티박스'를 개발한 ㈜엘비씨위드컴퍼니는 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억5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와 진흥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

역 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보육, 소액 투자, 초기 R&D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에 생존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주 K-Global 액셀러레이터 운영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스마트창업터 사업의 다양한 지원 외에도 2017 전주 K-Global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와 아울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선정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역 앞 마중길 교통불편 해소책 시급”

이병하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지난 5월 정식 개통된 마중길로 인해 전주 호성동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제 342회 임시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을 언급하

며 “마중길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시민에 비해 교통혼잡과 정체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중길 사업 계획단계에서 백제로와 연결되는 호성동 지역 주변 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마중길이 개통되고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 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성동 지역 교통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동물원 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골재업자에 기부 요구’... 정헌을 익산시장 경찰출석

간부 공무원을 이용해 골재채취업자 2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구한 정헌을 익산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정 시장을 이날 오전 8시부터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A씨는 “정헌을 시장이 간부 공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시장에게 장학금 기부를 강요받은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수년간을 익산의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온 업자가 골재채취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정 시장과의 대질조사에서 A씨는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과 민원 등 100여건 이상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며 “기부금으로 1억 원을 요구 받았지만 현금상 1,000만원만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시장과 대질조사를 한 A씨는 지난 10월 익산시 남산면 소재의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소유권 분쟁에 휩싸여 지난해 1월 11일 익산시로부터 채석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1월 20일 익산시청 국장인 B씨는 A씨의 업체에 채석금지명령 직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정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시장 통장 훔친 30대 덜미

시장의 통장을 훔쳐 1억6000만원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오후와 사기 등에 혐의로 A(37,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법인 회사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은행 본점에서 사장 B(54,남)씨의 차량에 있던 회사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쳐 1억6000만원을 인출해 서울로 달아났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채 빚을 갚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뇌물받은 진안 공무원 3명 구속

건설업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진안군 공무원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무원 A(51)씨 등 관련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2명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비 100여원이 투입된 ‘달길천·정자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부분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돕기 위해 영농활동에 필요한 착한 미생물 공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전주시, 안전한 먹거리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

내년부터 연간 총 288톤... 농가 생산비 절감·품질향상 기대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돕기 위해 영농활동에 필요한 착한 미생물 공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지역 농가의 농업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미생물 배양기(1톤) 2대와 저장탱크 등을 추가 조성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주당 2,000l의 유용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164㎡규모의 미생물 배양 시설을 조성하고, 미생물 배양기(500l) 2대를 가동해 현재까지 56톤의 미생물을 배양해 친환경농가에 공급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신규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미생물 배양기(1000l) 2대를 추가 조성, 내년부터는 연간 총 288톤의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용미생물은 공급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매달 격주당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농

가당 40리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공급하는 EM(효모와 유산균)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광합성균, 고초균인 단일균도 배양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미생물 배양실 시설 증설을 완료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농가에 공급할 미생물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연중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방법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김제가족간첩단, 피해자 고 최모 씨 장남 숨진 채 발견

34년만에 재심 끝에 간첩누명을 벗은 고 최을호씨의 장남 최모(63)씨가 실종된 지 이틀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에 김제시 잔방면에서 신고를 받아 수색하던 경찰이 발견했다.

최씨는 지난 9일 34년만에 누명을 벗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 최을호씨의 묘를 찾았다. 이후 최씨는 홀로 사라졌다.

김제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

서 농사를 짓다가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씨와 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건으로 이 때 최을호씨는 사형, 최낙전씨는 15년형, 최낙교씨는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장남 최모씨는 위 사건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오랜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유기족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
|--|---|
| <p>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 <p>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p> |
|--|---|